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살후 3:5)

제12호 <2007.6>

발행인:이순남 | 편집인:정성철 | 발행: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 서울시 양천구 목6동 911-1 | 전화 02-2650-5703~4 | 팩스 02-2653-8891

♣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소식

◆ 2008 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 경쟁률 5.1 대 1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이루어진 2008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 원서 접수 결과 일반전형 26명 모집에 151명, 특별전형 4명 모집에 2명이 지원하여 전체 경쟁률 5.1 대 1 (일반 5.8 대 1, 특별 0.5 대 1) 의 경쟁률을 나타내었다. 다른 의학전문대학원과는 달리 여학생만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화의전원에 대한 경쟁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 이화에 대한 지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였다.

이순남 의학전문대학원장은 이번 수시 모집 경쟁률 결과와 관련해 “여성 리더십 교육에 큰 역할을 해온 이화의 역량을 바탕으로 한 이화의전원의 장점에 많은 지원자가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화의전원 학생들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 봉사하는 여성 지도자로 성장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시모집 1차 합격자는 오는 7월 26일 이화의전원 홈페이지(<http://www.ewhamed.ac.kr>) 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오는 9월 8일 심층구술면접고사를 실시한 후 10월 5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설명회 성황리에 개최



2008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 입학설명회가 5월 4일 5시 학생문화관 소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대생 및 타교생 300여명이 참석하여 소극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는 모집요강, 교육과정, 졸업 후 진로

안내 등이 상세히 발표되었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석한 학생, 학부모 등의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져 이화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 이화의학시뮬레이션센터(EMSC) 개소식 열려



의학관 B동 814호에 이화의학시뮬레이션센터(EMSC: Ewha Medical Simulation Center)를 설립하고 5월 15일 개소식을 가졌다. EMSC는 학생, 전공의, 간호사, 지역 내 의료인 및 관련 종사자의 임상실기 교육을 하기 위한

곳이다.

이날 개소식은 약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현혜 교목의 기도로 시작되어 이순남 원장의 인사말, 윤건일 의무부총

장의 축사, 한재진 의학교육실장의 경과 보고 및 센터 소개로 진행되었으며, 이후에는 센터 개방 및 다과의 시간이 이어졌다.

EMSC는 외래 형태의 진찰실로 구성되어 시청각 기제가 완비되어 교육자료 제작이 가능한 OSCE 방과 Monitoring 방, 종합 시뮬레이션 방, Sim-man/Sim-baby 등 각종 모형과 임상 술기 훈련 및 Debriefing 등을 위한 Skills Lab 및 이동식 소형 강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합 임상 훈련용 컴퓨터 s/w 프로그램인 'Micro-Sim'이 설치되어 있다.



◆ 이화 의학 학습정보센터 (LRC) 설명회 개최



의학 교육 과정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이화 의학 학습정보센터 (LRC: Learning Resource Center) 사이트가 드디어 구축이 완료되었다. 이화 의학 학습정보센터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각종 학습자료 및 강의 자료실, 수업게시판 등을 운영하고, 향후 온라인 평가센터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구축현황과 사용방법 및 앞으로의 개선안에 대한 설명회가 2회에 걸쳐 목동과 동대문에서 열렸다. 설명회에는 목동 56명, 동대문 22명 등 총 78명의 교수가 참석하였다.

◆ 컴퓨터 임상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 설치

임상실기 교육을 위한 자가 학습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인 Micro-Sim이 목동에는 의학도서관 (10대), 의학관 B동 컴퓨터실 1 (100대), 컴퓨터실 2 (14대)에, 동대문에는 학생실습 컴퓨터실과 마취과, 소아과 의국에 설치되었다. 이는 임상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자에 대한 평가 및 처치 방법을 스스로 학습하고, 병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실제처럼 구현하여 학생 및 병원 내 의료인들이 병력청취, 검진, 평가, 진단, 처치, 약물투여 등 일련의 과정을 교육받으며 처치 후 실행한 과정에 대한 평가 제공이 가능한 자가 학습 프로그램이다.

◆ 제1회 소아심폐소생술 코스 열려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심장협회 인증 제1회 소아심폐소생술 (Pediatric Advanced Life Support, 이하 PALS) course가 의학과 B동 이화의학시물레이션센터에서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었다. 대한심폐소생협회 산하 소

아전문소생술 위원회에서 개최한 PALS 코스는 소아심폐소생술의 습득이 반드시 필요한 소아과, 마취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시험 자격 요건 중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제1회 행사에는 기간 동안 총 1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미국심장협회에서 인증한 미국인 강사 2명이 참가하였다.

◆ 의대 졸업 50주년 및 30주년 기념행사 개최



의과대학 졸업 50주년 및 30주년을 맞는 동창 15여명이 5월 30일 오후 5시 의과대학을 방문하여 의대에서 마련한 모교 방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교수 20여명, 재학생 30여명이 참

석하여 동창을 맞았으며, 이날 특히 조병채(前 동대문병원장) 50주년 대표의 50년 전 학창 시절을 회고하는 말씀에 재학생들이 열렬히 호응하여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하기도 하였다.

이순남 원장은 이희열 동창(6회 졸업), 2000만원을 기부한 이해성 동창(26회), 3000만원을 기부한 의학과 26회 동기대표에게 감사장 및 기념품을 전달하였고 이어진 의학과 2학년 최효선 학생의 바이올린 축하와 교가 제창으로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기념행사 후 동창들은 재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장소인 의학과 B동을 둘러보며 학창 시절을 추억하는 시간을 가졌고 저녁 만찬을 즐기며 모교 방문의 날을 축하하였다.

◆ 영상의학과 · 마취통증의학과 교실 명 개정

6월 8일자 총장 결재로 진단방사선과가 영상의학과로, 마취과가 마취통증의학과로 교실명이 변경되었다. 영상의학과는 지난 2006년 12월에 공포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에 따라, 마취통증의학과는 2002년 보건복지부 시행령에 근거해 이번 개명 절차가 진행되었다.

♣ 대외협력위원회 소식

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모금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외에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이화의대 선교 후원 기금, 대외협력기금, 각 교실 기금 등 다양한 형태의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위해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약정 문의 Tel: 02) 2650-5707

♣ 학생 및 교수 소식

1. 학생 소식

◆ 재학생을 위한 학년별 교학간담회 개최

재학생을 위한 교학간담회가 학년별로 개최되어 이순남 원장, 양현중 학생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들에게 동대문 병원과 관련된 현안 및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학교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듣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은 5월 7일(목동) 및 5월 16일(동대문), 3학년 학생들은 5월 8일, 2학년 학생들은 5월 10일, 의학전문대학원 1학년 학생들은 5월 29일에 해당 강의실에서 각각 교학간담회에 참석하였으며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였다.

◆ 2007 하계 이화해외의료봉사단, 발대식 가져



2007학년도 하계 이화해외의료봉사단(Ewha Medical Care:EMC)이 6월 21일 의학과 B동 701호에서 발대식을 갖고 22일 출국하였다. 봉사단은 교수 2명(정구영, 문영철), 학생 10명(의대 4명, 본교 6명), 병원직원 5명(의사 3명, 간호사 1명, 치위생사 1명)으로 구성되었다. 내과 문영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발대식은 치과 전문식 교수의 기도로 시작되어 응급의학과 정구영 교수의 경과보고, 이순남 원장의 축사, 이화총동창회선교부의 격려사, 이강진 원목의 말씀, 약품 및 의료용품 전달식 등으로 이어졌다. 발대식 후 다음날 출국한 봉사단은 22일부터 30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우르겐치에서 일반진료, 특수진료와 지역조사 활동을 수행하였다.

◆ 일반대학원 의학과 2007학년도 후기 입학전형 실시

일반대학원 의학과 2007학년도 후기 입학전형이 실시된 결과 석사과정 15명, 박사과정 12명, 통합과정 1명 등 총 28명이 합격하였다.

◆ 김병순 장학금 수여식 열려



김병순 장학금 수여식이 6월 26일 12시 30분에 의학과 A동 학장실에서 김병순 선생님(기탁자), 원장, 학생부장, 학생차장, 의학과 2학년 최윤이 학생(수혜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병순 선생님은 매년 250만원을 장학금으로 의과대학에 기탁하고 있다.

◆ 의과대학생 자유선택실습, 다양한 실습기회 확대

의학과 4학년 자유선택실습이 국내외 병원 뿐 아니라 언론사, 법률사무소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되어 진행되고 있다. 실습 장소는 연대세브란스 병원, 서울대병원, 서울 아산병원, SBS, 대외법률사무소, 미국LA 이정옥 동창 병원 등이며 특히 최근 교류협정이 체결된 동경여자의과대학에 2명이 실습을 나가 더욱 활발한 교류가 기대되고 있다.

◆ 의과대학 국시 모의고사 일정

일 자	내 용
7월 26일~27일	의학과 3학년 모의고사
8월 16일~17일	의학과 4학년 1차 모의고사
10월 22일~23일	의학과 4학년 2차 모의고사
11월 12일~13일	의학과 4학년 3차 모의고사

2. 교수 동정

◆ 이순남 의학전문대학원장, 대한암학회 학술상 수상



의학전문대학원장 이순남 교수가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 33차 대한암학회 학술대회에서 ‘사노피-아벤티스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임상연구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드러낸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이순남 교수는 An Evaluation of Nutrition support for Terminal Cancer Patients at Teaching Hospitals in Korea (김도연, 이순남)의 우수논문 발표하여 우리나라 종양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한편 이순남 교수는 부상으로 받은 상금 500만원을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으로 기부하였다.

◆ 윤건일 의무부총장, 법무부 장관 감사장 받아



5월 18일 오후 3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세계인의 날’ 지정 기념 행사에서 윤건일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법무부장관 감사장을 받았다.

◆ 김혜순 교수, 저명 소아전문저널지 표지 논문 채택



소아과 김혜순 교수의 논문이 소아과의 대표적인 학술지인 *Pediatric Research* 2007년도 판 Vol. 60 No.2 의 표지논문으로 채택됐다. 이번 논문은 인슐린양성정인자 결합단백-3 이 지방세포와 쥐 실험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나타낸 것을 실험으로 증명해낸 것으로 이는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발병하는 당뇨병의 원인과 관련한 중요한 발견으로 당뇨병 치료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제 21차 의학교육합동학술대회 및 워크샵 참가

제 21차 의학교육 학술대회 및 워크샵이 ‘의학교육에서 학습부진의 현상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간 부산 해운대 그랜드 호텔과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에 이순남 원장 등 총 15명이 참가하였으며, 본교에서는 안정희 교수 (BK21 사업단 연구교수)가 “우리나라 의학전문대학원/의과대학의 인문사회의학 교과목 운영현황 및 교과 학습내용 분석”을, 임현정 연구원 (BK21 박사후 과정)이 “면접점수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채점자 일관성 비교 분석”을, 한재진 교수 (의학교육실장)가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의 배경 특성 및 의료가치관의 비교”를 자유연제로 발표하였다.

♣ 의료원 소식

◆ 제1회 이대목동병원 및 협력병의원 연합학술대회 개최

제1회 이대목동병원 및 협력병의원 연합학술대회가 목동병원에서 5월 19일 강서-양천구 지역의 약 250여 협력지역 병의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강서구 의사회, 양천구 의사회와 함께 진행된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일차진료에서의 진단과 치료(이진행 원장), 고혈압치료의 실제(박시훈 교수) 등 6개의 현장주제 발표와 지면을 통한 연제 5개가 발표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학병원과 지역의사회가 함께하는 순수 학문교류의 뜻 깊은 장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이대동대문병원 개원 62주년 기념식 열려

이대동대문병원 개원 62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4월 20일 윤건일 의무부총장 등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장기근속자 20여명 등에 대한 표창 전달식 등이 진행되었다.

♣ 알려드립니다 ♣

<소식지 원고 모집>

-의학전문대학원· 의과대학 소식지는 분기별 (3/6/9/12월) 발행되며, 소식지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heejee77@ewha.ac.kr)

-소식지 내용은 의학전문대학원· 의과대학 홈페이지 (www.ewhamed.ac.kr) 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동창 주소 변경 문의 (Tel: 02) 2650-5782)

♣ 동창회 소식

◆ 이화의대 동창회, 제41차 정기총회 개최

이화의대 동창회(회장 김화숙)는 5월 22일 롯데호텔에서 '제4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우경숙 동문(21회 부천 미즈앤미여성의원 원장)을 신임동창회장에 선임했다. 이날 열린 시상식에는 정혜경 교수(이화의대 내과), 이향운 교수(이화의대 신경과)가 우수 논문을 통한 연구비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의 이화인으로는 이혜성 동문(26회)이 선정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김화숙 회장이 1000만원, 양경희 동문(37회) 1억원, 이혜성 동문(26회) 2000만원, 26회 동기회 3000만원의 장학금을 각각 기탁했다.

◆ 우경숙 동문, 신임동창회장 선출



올해로 62주년을 맞는 이화의대 16대 동창회장에 우경숙 동문이 선출되었다. 우경숙 신임동창회장은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이 쉽게 화합할 수 있도록 친정같은 동창회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향후 의학전문대학원 출신 동문들도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동창회를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 해외 연수 보고

미국 UCLA를 다녀와서

- 의대 선배님의 따뜻한 배려로 연수를 잘 마쳐 -

안과 전공의 서 울



우리 안과에는 한 달간 안성형 분야를 중심으로 파견을 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나는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17일까지 미국 california LA에 위치한 UCLA medical center에 한 달 간 파견을 가게 되었다. 본과 4학년 때 baltimore에 위치한 Johns Hopkins의 wilmer eye institute에 observationship을 한 적이 있어 다시 가고 싶기도 하였으나,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하고 고민하던 중, 안과 과장님이신 임기환 선생님께서 해외연수를 갔다오신 UCLA 사시 파트 교수인 Joseph L. Demer를 소개해 주셨다.

그런데 일정을 9월 이후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월에 오라는 메일을 받게 되었다. 기간이 바뀌면서 숙소 때문에 고민하던 중 현재 LA 이대 동문이신 이정옥 선생님을 임기환 선생님을 통해 소개받았고, 연락하던 중 UCLA근처에 계신 다른 동문 선배이신 김순자 선생님을 소개받아 결국 host family가 결정되었다. **나에 대해 전혀 모르실텐데, 의대 후배라는 이유로 한 달간 머물게 해주신 선생님과 가족들의 결정에 많이 놀랐었고 감사했다.** 또한 LA 동문 회장인 이의정 선생님이 이화의료원 베트남 단기선교에 참여하게 되어 UCLA로 출발하기 전 한국에서 만나 뵈 수 있었다. 평소 주위에서 이대는 결속력이 약하다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 학교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나 또한 훗날 선후배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스스로 준비하기 전에 모든 것들이 예비되어 있음에 감사했고 기대 반 설렘 반으로 한 달간의 파견 생활이 시작되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녹내장파트, 수요일과 목요일은 사시파트, 금요일은 안성형 파트와 외래, 수술 참관으로 시작되었다. UCLA 안과는 Jules Stein과 Doris Eye institute의 의료원과는 독립된 두 건물로 구성되고 9개의 세부파트에 40-50명의 staff, 23명의 전공의, **50명의 fellow**들이 일하고 있었다. 출발 전에는 나의 참관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가지고 있었고 주위에서도 그럴 것이라 해서 일단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나를 소개하였다.

처음에는 복잡한 스케줄을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처음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과 즐겁게 지낼 수 있었고, 병원시스템이나 전공의 프로그램, 진료 등에 대해 많은 얘기들을 나누었다. 각 파트 교수님들과 clinic fellow, 필리핀, 태국, 일본에서 온 international fellow, 안재홍 선생님과 김석환 선생님, 전공의들, 참관 온 인도, 프랑스 의사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떠오른다. 여러 나라에서 온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큰 즐거움이었고 그들의 적극적이고 학구적인 태도에 각성하는 계기도 되었다.

병원은 워낙 유명하고 규모가 큰 병원이라 어느 파트든 여러 번 수술하고 refer되어 온 환자들이 많았고 pulley fixation, orbital fat decompression 등을 비롯한 여러 흥미롭고 다양한 케이스들을 접할 수 있었다. 본래 외래가 환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전공의가 되어 다시 보니 바쁘다는 핑계로 환자들에게 좀 더 배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외래와 수술방과 grand round에서 활발한 질문과 답변, 토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 또한 파트마다 차이가 있지만, 내원한 환자차트를 다시 보면서 확인하고 서로 토의하는 파트별 컨퍼런스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학생 때나 전공의 때 궁금하지만 너무 기본적인 것 같아 물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를 보면서 환자를 위해서 기본적인 것이라도, 아니 기본적인 것일수록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이대 동문 선생님들 모임에도 참여하였는데 현재 의과대학이나 병원시스템, 병원 단기선교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그런 선생님들을 만나니 감사하고 든든했다. 바쁜 와중에도 이정옥 선생님은 샌디에고까지 시간을 내 주셔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에 대해 말씀해주셨고 신앙적으로도 회복되는 기간이었다. 또한 정동선 선생님과 이의정 선생님도 시간을 따로 내어 여러 곳을 구경하고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4주간의 파견기간 동안 바쁜 일정으로 인하여 체력적으로 힘든 점도 있었지만, 안과적인 지식을 배우는 기회 뿐 아니라 많은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고민했던 의미있는 기간이었다. 마지막으로 너무나 편하게 배려해주셔서, 앞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신 김순자, 곽 철 선생님과 가족들, 여러 이화가족들과 UCLA사람들, 그리고 4주 파견을 갈수 있게 해준 안과 교수님들, 전공의들, 외래식구들, 그리고 이런 기회를 허락해주신 그분께 감사드립니다.